

휘파크 오픈! 스키의 계절이 시작됐다

휘닉스파크 스키장, 가장 먼저 개장

700m 초중급 코스 개장...리프트 무료
14일부터 야간개장 시작...이벤트 풍성

비발디파크 내일 오픈...주말 특가요금
홍익대·강남 일대에서 '게릴라 이벤트'

스키어와 보더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소식
이 들려왔다. 강원도 평창의 휘닉스파크가
국내 스키장 중에서는 가장 먼저 13일 개장
한다. 흥천의 비발디파크 스키월드도 다음날
인 14일 개장한다.

휘닉스파크는 이날 700m 길이의 초중급
코스인 펄권 슬로프를 오픈하고 14/15 겨울
시즌을 시작한다. 휘닉스파크는 개장을 위해
그동안 67대의 제설기를 동원해 눈만들기 작
업을 해 왔다. 개장일인 13일은 모든 고객에
게 리프트 이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슬로프

를 오후 4시30분까지 운영한다. 14일부터는
야간스키(18:30~22:30)를 시작한다.

휘닉스파크 관계자는 “가상예보가 좋아 주
말 중에 슬로프를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휘닉스파크는 13일 방문하는 고객들
을 대상으로 입장 순서와 시간대별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게릴라 이벤트’를 진
행한다. 개장일부터 11월 말까지 공식 애플
리케이션 ‘휘파타운’을 다운받으면 리프트
이용권을 5000원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진행
한다. 특히 이번 14/15시즌이 개장 스무 번
째 시즌임을 기념해 겨울 동안 다양한 이벤
트와 행사를 실시한다.

우선 인디 뮤지션들이 80~90년대 음악을
재해석한 콘서트와 아날로그 감성의 DJ소로
구성한 ‘제1회 아날로그 뮤직 페스티벌’을 진
행한다. 이밖에 휘닉스파크와 동강내기 친구
(만 20세)들을 위한 스키 리프트 및 스파 할
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이벤트,
인디 록밴드 초청 콘서트 및 클럽 디제잉 파
티 등이 열린다.

●14일에는 흥천 비발디파크 스키월드 오픈

휘닉스파크에 이어 다음날인 14일에는 강
원도 흥천의 비발디파크 스키월드가 낮 12시
부터 발라드 슬로프를 오픈하고 14/15 스키시
즌을 시작한다. 발라드 슬로프는 길이 480m,
최대폭 150m의 초급자 코스로 스키, 보드 이
용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슬로프다. 개장
일은 슬로프를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개인스
키 보관함 및 시즌권 발급 등 부대시설도 슬
로프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비발디파크 스키
월드도 오픈기념 이벤트로 리프트를 무료로
개방하며 스키, 보드 등 장비 대여를 1만원에
특가 제공한다. 또 개장 첫 주말인 15일과
16일은 특가요금으로 운영한다.

한편 비발디파크는 스키장 오픈을 기념해
14일과 15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홍익대
학교와 강남 일대에서 ‘게릴라 이벤트’를 실
시한다. 비발디파크는 지속적인 제설작업을
통해 제스, 레게, 테크노, 펑키, 블루스 등의
슬로프를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



◀13일 국내 스키장 중 첫 번째로 개장하는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의 슬로프를 질주하며 내려가는 스노우보더들. 휘닉스파크를 시작으로 14일 비발디파크 등 스키장들이 잇따라 개장하며 14/15 겨울 시즌이 열린다.

사진제공: 휘닉스파크

같은 아이템은 포인트 다르게...다른 아이템은 콘셉트 통일

■아웃도어 커플룩, 어떻게 입을까

모자·가방 등 소품을 통일시키는 것도 요령
평범한 아이템으로 멋스럽게...‘놈코어’ 인기

가을이 깊어졌다. 가을은 캠핑, 등산, 레포츠
는 물론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가을
만큼이나 연인들의 사랑도 깊어지는 계절이다.
아웃도어 활동뿐만 아니라 도심 데이트를 할 때
에도 아웃도어 커플룩을 입고 애정을 과시하는
커플들이 많이 눈에 띈다. 그런데 커플룩이라고
똑같이 맞춰 입기만 하면 땀시가 나지 않는다.
잘못하다가는 촌스러운 커플로 행인들의 눈길
을 끌기 십상이다.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멋있
게 입을 수 있는 아웃도어 커플룩, 어떻게 입으
면 좋을까.

●같은 아이템은 포인트를 다르게, 다른 아이템은 콘셉트를 통일

같은 아이템이라면 포인트를 달리하자. 커플
룩의 기본 스타일은 같은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
이다. 하지만 너무 기본에만 충실하면 단조롭고
쉽게 싫증이 나게 된다. 같은 디자인의 아이템
이라면 색상을 달리하거나 포인트를 다르게 해
주는 것이 요령이다.

2535세대를 위한 아웃도어 브랜드 엘리밋은
‘샤모니 블러킹 재킷’과 ‘LD 샤모니 블러킹 재
킷’을 추천했다. 커플재킷이지만 남자 쪽은 재
킷 위에 카모플라주 베스트를 입어 포인트를 줄
수 있다. 남자는 팬츠, 여자는 레깅스를 착용하
면 통일성을 주면서도 커플의 개성을 살릴 수 있
다.

다른 아이템이라면 반대로 콘셉트를 통일해
준다. 소품을 활용해도 좋다. 데칼코마니같은
커플룩에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모자, 가방, 신
발과 같은 소품을 통일해 센스 있는 커플룩을 연
출할 수 있다.



패션의 계절 가을을 맞아 아웃도어 커플룩으로 애정을 드
려내는 연인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커플룩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아이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디자
인, 색상, 소품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훨씬 더 세련되고
멋진 커플룩을 완성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아웃도
어 재킷, 바지, 배낭 등으로 커플룩을 연출한 엘리밋 전
속모델 임시원(오른쪽)과 정은지.

사진제공: 엘리밋

엘리밋 사업부장 박용학 상무는 “요즘 젊은
세대는 커플룩 아이템으로 고기능성과 디자인
을 겸비한 아웃도어 의류를 선호한다”며 “아웃
도어 의류라도 포인트를 주거나 색상을 다르게
연출하면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멋진 커플룩을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놈코어’ 커플룩에서 ‘미니미’ 패밀리룩까지

노스페이스의 추천 커플룩 제품은 자체개발
방수원단인 ‘하이벤트’와 최상급 구스다운 충진
재를 사용해 보온성을 높인 ‘하프 돔 다운재킷’

이다. 본격적인 겨울 데이트를 위한 든든한 아
우터로 커플룩에 잘 어울린다. 여성용으로는
‘칼리아 다운코트’가 제격이다.

올 가을·겨울 패션시장에서는 ‘놈코어(Norm
core·normal과 hardcore의 합성어)’ 바람이
드세다. 놈코어는 평범해 보이는 아이템을 가지
고 멋스럽게 스타일링하는 패션을 의미한다. 특
히 여성의 경우 남성적인 핏이 강한 제품을 선택
한 뒤 루즈와 스키니한 핏을 동시에 스타일링하
곤 한다. 영화 촬영장 같은 곳에서 여배우들이
두들기고 활렁한 다운재킷을 걸치고 카메라 앞
에 앉아 자신의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습
을 상상하면 된다.

블랙야크의 ‘B5XM5 재킷’은 윈드스토퍼 헤
비구스다운재킷으로 비대칭질개와 심플하면서
도 고급스러운 배색감이 돋보인다. 블랙야크 마
케팅본부 남윤주 팀장은 “편안한 스타일로 멋을
내는 놈코어 트렌드와 함께 아웃도어 제품을 찾
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커플룩으로 활용하
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여반 아웃
도어 재킷 ‘베오르’을 커플룩 아이템으로 추천
했다. 남성용과 여성용 재킷의 기장, 디자인에
차이를 주어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매력을 느끼
게 한다. 캐주얼한 야상 스타일로 아웃도어룩뿐
아니라 데일리룩, 정장과 함께 입는 비즈니스룩
으로 활용하기에도 좋다.

센터폴의 ‘마테호른 프리미엄 다운재킷’은 남
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웃도어 커플룩 연
출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여성용은 엉덩이를 덮
는 긴 길이감과 허리선 여미처리로 슬림하면서도
길어 보이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밀레는 연인은 물론 패밀리룩까지 고려한 키
즈라인 제품을 추천했다. 성인제품과 동일한 디
자인으로 제작돼 아이들에게 입히면 캄캄한 ‘미
니미룩’의 느낌을 살릴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등산, 캠핑을 즐기는 30대 젊은 부부들 사이에
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양형호 기자

양형호의 아이 러브 스테이지

|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김소현, 베르사이유의 장미에 ‘빙의’

회전무대의 효과 최대한 끌어내 볼거리 제공
김소현, 마리 앙투아네트 두 얼굴 완벽 연기
1막 ‘운명의 수레바퀴’ 합창은 최고 명장면

“당신 곁에서 평생 지켜주겠어”라는 남자의
약속을 믿는가. 아니면, 지킬 수 없음을 알면서
도 믿고 싶은가.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당신을 지켜주겠
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
의 아픔을 ‘아프게’ 파헤치는 극이다. 등장인물
의 개연성 부족, 프랑스혁명의 폄하, 역사왜곡
의 논란이 있지만 작가는 말없이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뻗고 있다.

눈부신 상들리에 아래에서 치렁치렁한 가발
에 잔뜩 부풀린 드레스를 입고 빙글빙글 돌아가
는 무도회풍 뮤지컬에 식상한 감이 없지 않지만
마리 앙투아네트에 눈길이 가는 것은 이렇듯 ‘할
말을 정확하게 하는’ 작품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뮤지컬 무대 메커니즘의 현 수준을 과시
할만한 무대는 인상적이었다. 회전무대의 효과
를 최대한 끌어냈다. 한 가지, 무대 위에 다시 세
운 경사무대는 과연 이 작품이 자랑할만한 볼거
리였지만 무대에서 가까운 좌석의 경우 경
사무대의 정리되지 못한 밑 부분이 고스란히 눈
에 들어온다는 점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어쩔
지 기울어진 평상 위에서 배우들이 아슬아슬 연
기하는 느낌이었을까.

뛰니 뛰니 해도 마리 앙투아네트 역을 맡은 김
소현의 연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김소현으
로서는 본인 연기인생의 ‘정점’을 찍은 듯하다.
그가 지닌 특유의 기품이 완벽하게 마리 앙투
아네트에 투영됐다. 두 남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
는 ‘베르사이유의 장미’로서의 얼굴과 두 아이
를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을 완벽하게 표현했
다. 이 배역을 위해 단단히 칼날을 베풀고 나온
것이 느껴졌다.

모든 것을 잃고 연금마져 당한 최악의 상황에
서조차 도도한 기품을 잃지 않던 마리 앙투아네
트는 병사들이 아들을 찾아가자 일거에 무너져
내린다. 이 장면에서 김소현은 ‘국모’가 아닌 ‘생
모’의 찢어지는 심정을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 정도의 박력으로 밀어
붙인다.

김소현과 더불어 캐스팅된 옥주현의 마리 앙투
아네트도 자못 궁금하다. 치열한 분석을 통한
교과서적 캐릭터 해석이 장기인 옥주현의 마리



‘베르사이유의 장미’로 불린 비운의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랑과 인생을 그린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김소현(오른쪽)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가진 두 개의 얼굴을 완벽하게 표현해 매회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EIMK뮤지컬컴퍼니

앙투아네트는 김소현과 확실히 다른 인물을 보
여줄 듯하다.

이 작품에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여인이 등장한
다. 거리의 여인이라는 천한 신분이지만 혁명의
선두에 서는 마그리드 아르노. 마리 앙투아네트
의 얼굴에 삼페인을 끼얹을 정도로 당찬 여인으
로 차지연이 맡았다. 차지연은 이제 그 어떤 배
역의 옷도 자유자재로 갈아입는 배우다.

1막 마지막 넘버인 ‘운명의 수레바퀴’의 합창
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명장면. 웅장한 합창
을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하며 천장까지 솟구치
는 김소현과 차지연의 ‘소리’는 경악스러울 정
도다.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더케이호텔 ‘윈터 패키지’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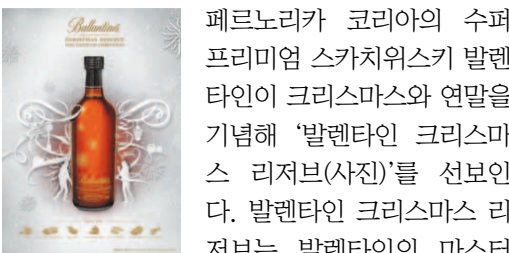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서울
은 추운 겨울을 맞아 가족과 연인, 친구와 뜻 깊
은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인 ‘윈터 패키지
(Winter Package·사진)’를 28일부터 2015년
2월28일까지 선보인다. 윈터 패키지에는 더케
이호텔서울 디럭스 스위트룸에서의 1박과 조식 뷔
페 2인, 휘트니스 2인 무료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을 배려해 어
린이 조식 뷔페의 경우 패키지 이용 고객에 한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셰프가
즉석에서 요리하는 라이브 키친을 비롯해 겨울
제철 재료를 활용한 겨울 특선을 맛볼 수 있는
뷔페 레스토랑 더 파크에서의 2인 디너 이용권
과 이탈리아 북부의 대표 도시 베네치아 스타일
의 메뉴를 즐길 수 있는 정통 이탈리아 레스토랑
우엘로에서 봉골페 파스타 2인 식사권을 선택
가능하다.

하이트진로 90주년 한정판 ‘진로1924’ 판매

하이트진로는 창사 90주
년을 기념해 국내쌀 100%
증류식 소주인 ‘진로
1924(사진)’를 27일부터
특별 한정 판매한다. 진
로1924는 하이트진로에
서 1984년(60주년 기념주)부터 매 10주년을 기
념하며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특별한 소주다. 이

천살을 증류원액으로 블랜딩한 정통 증류식 소
주이며, 도수는 35%다. 증류식 소주는 보통의
희석식 소주에 비해 맛과 향이 깊은 것이 특징이
다. 이번 90주년 기념 한정판 진로1924는 700ml
제품 1병, 하이트진로의 역사와 진로1924 제품
특징을 담은 스토리북 1권, 전용잔 2개로 구성
했다. 1만5000세트 한정 판매.

페르노리카 ‘발렌타인 크리스마스 리저브’ 선택



발렌타인 샌디 히슬롭이 엄선된 원액과 정교한
블랜딩을 통해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순간을
발렌타인만의 스타일로 재현해 낸 제품이다. 가
격은 7만원(700ml, 소비자가 기준).

하나투어, 15·16일 결혼박람회 개최

하나투어가 15일과 16일 이틀간 서울, 대전, 청
주, 평택, 구미, 광주, 대구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하나투어 결혼박람회’를 개최한다. 하나투
어 결혼박람회는 웨딩, 허니문, 혼수·예물, 가전
등 결혼준비에 필요한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하나투어와 웨딩컨설팅 자회사 H웨딩이 함
께 여는 행사다. 박람회 기간 특별가로 상품을
제공하고 현장 계약자에게는 현금처럼 사용가
능한 ‘하나투어 마일리지’나 신용카드(KB국민
카드 혹은 롯데카드)와의 제휴를 통한 최대
20만원의 캐시백을 증정한다. 행사장에서는 오
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매시간 럭키타임
이벤트를 진행하고 행사 기간 동안 하루 두 차례
허니문 경매행사를 실시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